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수사일보

정치일보

제 529 호 대표전화 (062) 373-6448

(음력 4월 28일)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세수 감소 현실화…광주시, 세출구조조정 불가피

2차 재정전략회의…국세·지방세 동반감소 재정여건 크게 악화
기존 사업 원점 재검토·민간이전 유사중복 개선·경상경비 절감
강기정 시장 "지역경제·민생안정 외면은 안돼…선택과 집중을"

광주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전체 실·국장과 안도걸 재정경제자문역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제2차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세수 감소 현실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세수 감소 현실화에 따라 하반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 허리띠를 바짝 조이기로 했다.

광주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전체 실·국장과 안도걸 재정경제자문역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제2차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세수 감소 현실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광주시의 현재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세입 전망과 함께 재정수요 파악, 향후 대응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올해 경기 흐름과 정부 정책방향,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실제 최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이 고금리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와 주요국 경기 불황으로 인한 대외무역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낮춰 1.4~1.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2.6%보다 크게 둔화된 수치다.

또 올해 국세와 지방세 세입이 전년동기(1분기 누계 기준) 대비 각각 24조원과 2조2천억원 동반 감소함에 따라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38.7%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가 세수 감소 충격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정전략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 감소로 어려운 세입여건 상황에 대비해 세입과 세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기존 사업 추진사항 재검토, 민간이전 유사사업 조정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돌입한다. 또 경상경비 절감,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출절감 방안을 마련해 재정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성장을 위한 미래차 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사업,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국내외 경제여건 분석, 투자수요 분석 등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마련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안도걸 재정경제자문역은 "올해도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과 재정운용도 힘겨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AI 집적화 2단계 사업이나 신규 사업 등의 타격이 우려된다. 이를 대비해 사전 중간점검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정부에 강하게 주장하고 내년도 예산확보의 논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들어 두번째 열린 재정전략회의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공유하고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며 "하반기 경기가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문수 기자

기아 AutoLand광주-협력사,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성료

기아 AutoLand광주(공장장: 박래석)는 지난 14일 협력사와 자율형 상생 우수모델을 확산시켜 중대재해 감축에 기여하고자 협력사와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아 제공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안전문화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기아 AutoLand광주(공장장: 박래석)는 지난 14일 협력사와 안전보건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자율형 상생 우수모델을 확산시켜 중대재해 감축에 기여하고자 협력사와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기아 AutoLand광주 주관하에 광주/전남권 협력사 80개사와 광주광역시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폴리텍 관계자가 함께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결의 대회를 통해 기아는 협력사와 함께 모든 종사자들의 안전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결의하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네가지 지원 방안을 밝혔다.

첫번째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및 점검지원을 통해 자율 안전보건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협력사 안전등급제를 운영한다.

두번째 협력사 39개사를 대상으로 위험/일반기계기구, 작업환경, 화재안전 등 현장부문과 경영자 리더십, 안전교육, 공사안전관리 등 서류부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자율적 이행을 지원한다.

세번째 협력사와 월1회 안전보건 협의체를 열고, 분기 1회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공유 및 소통채널을 구축해 지속 관리한다.

네번째 상시적으로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해 안전개선제안을 접수 받고 관련 내용과 진행사항을 공유한다.

기아 관계자는 "자율안전관리 활동이 우리 모두의 사명과 책임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안전문화가치 확산에 일조하고자 금일 결의대회를 실시하게 됐다"며 "금일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협력사와 함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